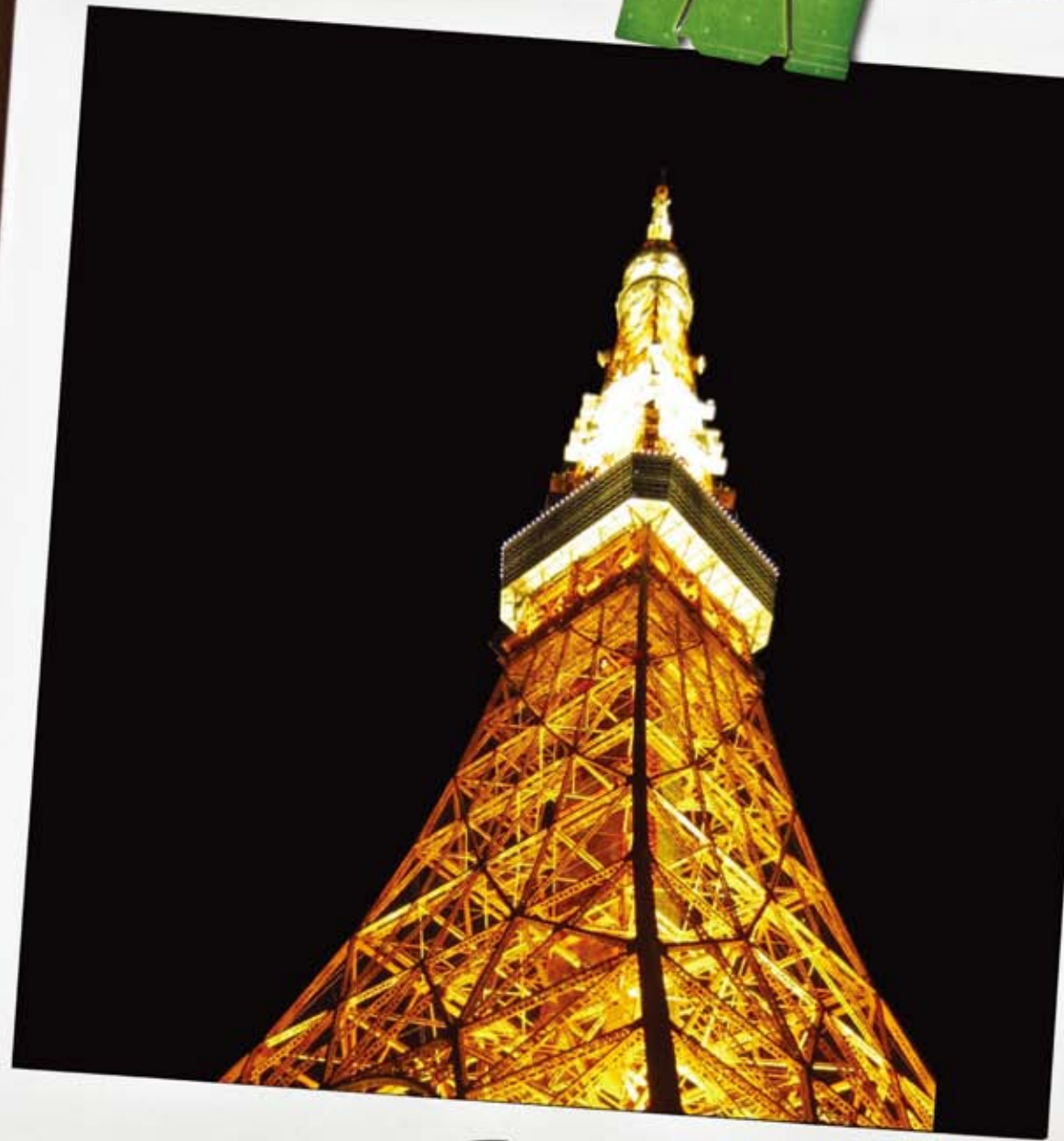


# Carpe Diem 2010

저는 저를 참 좋아합니다  
밤길 걷기  
별들의 등판을 향해 떠나다  
더 빛날 수 있는 건  
관계  
어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엇이든  
누가든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더 빛날 수 있는 건

어떻게 때문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살다보면, 평소엔 몰랐던 나의 능력이 발휘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 한번 듣고 외우게 된 글귀가 있어요.

가끔 떠올리면 여정리 좋고, 정말 그런지 따져보기도 하고. 심심풀이로 읊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

라.' 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처럼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죽음을 맞는다던

안 되겠지만,

나르시스가 물속에 얼굴을 비추듯 나와 다른 사람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건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신비.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나요?

\*나르시스(narcissus) -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물속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다 죽은 소년의 이름



# CONTENTS

06 그들의 자살보기      먼 옛적 햄릿은 말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08 우리들의 자살보기      2010년 EASYNET 전태일 40주기  
추모문화제 출품 영상  
'푸른 자살' 제작 후기

## 더 널리 말하기

12 청소년 좌담회      '관계' Relationship around ME

18 자살을 이겨낸 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면, 끝이  
아닙니다. - 닉 부이치치

20 길고도 짧은 인터뷰      저는 저를 참 좋아합니다!  
- 진진연

## 계대를 보기

24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26 시론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적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32 미디어 속의 자살보기      언제나 큰 하늘은 그대 등 뒤에 있습니다.  
-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드라마 '시크릿 기든'

## 뿌리치기

38 스트레스 대응하기      별들의 들판을 향해 떠나다

42 놀아줘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취미는 요리라고 하네 ♪

44 남겨진 사람      밤길 걷기

46 고민과 상담

48 help network

50 teens in csp

나는 요일별로 웹툰 본다  
수원시 중학교 생명사랑 프로젝트  
'I'm your friend'

Cape Diem 2010 청소년 자살예방홍보지 통권 제7호

발행간기 연간 | 발행일 2010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영문 | 발행처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34-3 Happy 마음터 3층  
전화 031-228-3279 | 홈페이지 www.csp.or.kr  
기획편집 서정희 권선영 | 디자인 D\_storming | 인쇄 밝은아침 명초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인쇄하거나 활용하거나 할 때는 수원시자살예방센터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수원시 정안구 보건소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면 옛적 햄릿은 말했다.

널려있는 천태만상의 힘겨움..  
그 힘겨운 생을 이어갈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

삶은 고통이라 했다.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 했다.  
이 고통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책장을 들춰보자.

글 권선영(홍보부)

**1** 대개의 사람들은 죽음을 단지 어두운 것, 두려운 것, 의식적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산다. 그러나 죽음이 존재하기에 삶을 더욱 탄력 있고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모든 생명은 빛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본시 어둠으로부터 왔다고 한다. 어둠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 우리는 나날이 고된 삶을 살고 있으나 동시에 화사한 죽음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 윤대녕



이 부분을 읽고 이 시가 생각났다.

바다 안에는 어머니가 있다.  
발가슴이 알몸으로 내가 최초의 물을 온몸으로 느꼈던  
기억 이전의 바다.  
내 목숨 최초의 열 달을 한 마리 물고기처럼 킁킁한 그 안에서  
촉감으로 사귀었던 태초의 바다.  
어머니 〈바다의 성분〉 중에서

그래, 엄마 뱃속도 어둠이었다. 밤이 있기에 새벽녘  
동이 뜨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다.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  
는 거다.  
.. 짙은 어둠일수록 찬란한 빛을 맛볼 수 있겠지.  
매일 일어나는 지구의 수많은 죽음에도 해는 끄덕하  
지 않고 하늘 위에 오르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밝  
는다. 내 죽음에도 세상은 마찮가지일 거다. 예외  
가 없다. 누구 말마따나 가이드라인이 참 확실하다.  
어차피 끝날 거, 내 멋대로 영망진창 보낼지,  
어차피 끝날 거, 내 멋대로 멋있게 살지,  
각자에게 달렸다.

## 2

“우리가 사는 게 안 좋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나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린 아직 여기 있  
잖아.”

〈더 로드〉 - 코맥 매카시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죽은 후에 나 없는 세상 보다는 사후가 궁금해진다.  
끝장 재밌는 게임이 나왔거나 약약 하나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S라인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대도 죽은 사람에게서 '해당사항 없음'이기 때  
문이다.  
죽음을 맞는 사람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사후  
세계일 거다.  
신이 있다면, 왜 죽음 후의 일을 비밀로 했을까?  
천국과 지옥, 윤회를 보여주면 세상에 만들어지는  
'악'이 죽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알면 다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آمد, 살아 있으나 죽으나 내가 없는 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윤대녕

〈더 로드〉 코맥 매카시

〈침춘불패〉 이외수

## 3

생(生) 노(老) 병(病) 사(死) 희(喜) 노(怒) 애(哀) 락(樂).  
일렬종대로 한 농씩 정렬해 놓으니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유사 이래로 이 여덟 가지 인생 메뉴를 식성대로 골라먹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도 골라 먹지 못했고 부처도 골라 먹지 못했다. 그것을  
골라 먹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말  
아먹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오로지 생(生)과 희(喜)와 락(樂)  
만이 계속적으로 식탁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손  
가락질 한 번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도가라 하여도  
그런 것들만 골라 먹으면서 일생을 보낼 수는 없는 법이다.  
(.....)

지금까지 그대를 생존케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그대에게 목숨을 바쳐왔는가,  
수많은 벼들과 수많은 배추들, 수많은 닭들과 명치들, 그리  
고 감자, 양파, 부추, 마늘, 심지어는 저 깊은 심해를 유  
영하던 것들까지도 기꺼이 그대 뱃속으로 들어가 똥이 되  
었다.  
그대는 그것들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보답  
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그것들이 그대의 죽음을 만장일치로 찬동할 때까지 그대의  
목숨은 그대 스스로 꿀을 수 없다.

〈침춘불패〉 - 이외수



내 입에 넣었던 수많은 음식들이 떠오른다. 새삼 고  
맷다. 가끔 생각하면 되새겨 고마워해야겠다.  
세상이 공평하다는 사람도 있고, 불공평하다는 사  
람도 있다.  
글쎄.. 작은 모르겠지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묵직한 걸 본다면, 속발선이  
다르니 불공평하고, 어떤 부귀영화든 누리건 생의  
끝을 맞는다는 건 공평하다.  
타고난 미모는 불공평하지만, 외모를 뛰어넘는 매  
력으로 호감을 받는 사람은 보면 공평한 것 같다.  
나에게만 시련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위로가 다 씩은 껌보다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거 안 것 같다. 누구에게도 삶은 쉽  
지 않다는 것.

2010년 EASYNET 전태일 40주기 추모문화제 출품 영상

prologue | blog

tags | guest



구성\_이주연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Love& faithfulness  
meet together;  
Righteousness& peace  
kiss each other.  
(Psalm85:10)

주봉  
Neighbor Connect

Following Followers

전체 이웃 12명



more 1/1

Follow

HOBBY 3  
TOTAL 58779

02:56  
AM

POWERED BY NAVER BLOG  
RSS 2.0 | RSS 1.0 | ATOM 0.3

2010/11/30 00:21

# '푸른 자살'



## 제작 후기



<푸른 자살>의 한 장면~

EASYNET 주관으로 열린 전태일 40주기 추모문화제에 나와 몇 명의 친구들은 '푸른 자살'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상영했다. 3일 정도의 짧은 제작 기간이었고 참여한 인원도 소수였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재미있게 작업했고,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청춘(靑春)을 죽어가면서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은 시선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막연한 '희망'도 아니지만, 완전한 '절망'도 아닌, 그 둘 사이 어디엔가에서 짙은 안개를 헤치며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다. 비록 오늘날 전태일과 같은 '아름다운 청년'이 나오기 더 힘들어진 시대라 해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이렇게 함께 설레고 행복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나의 봄을 더욱 푸르게 살려봐야겠다.

▶ 댓글

### 하연

언니, 안녕하세요. 저 고등학생 하연이에요. "푸른자살"이라는 제목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영상이나 글 속에서 보이는 언니의 청춘은 참 행복해 보이네요.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언니처럼 행복하고 싶네요... 2010/12/4 22:38

### 주연

안녕하세요! 하연이 학생은 지금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네요. 그런데 나는 하연이가 생각하는 '행복'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하연이 학생이 보기에는 내가 참 행복한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나도 매일 매일 매순간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힘이 들 때도 있죠. 파도같이 쏟아지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렁일 때도 있고, 외줄타기를 하듯 혼자서 외롭게 비틀거릴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게 "당신은 행복합니까?"하고 물어온다면, 나는 "그렇다"고 답하고 싶네요. **나에게 있어 행복이란,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있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발붙이고 서 있는 이곳에서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2010/12/5 09:13

### 하연

그런데요, 언니. 머리로는 알아도,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 자꾸만 뒤쳐지는 느낌이 들 때는 정말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대학교에 가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좋은 직장 가서는 돈 많이 벌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해야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살아남을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모든 체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 용기도 없어요.... 가끔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2010/12/7 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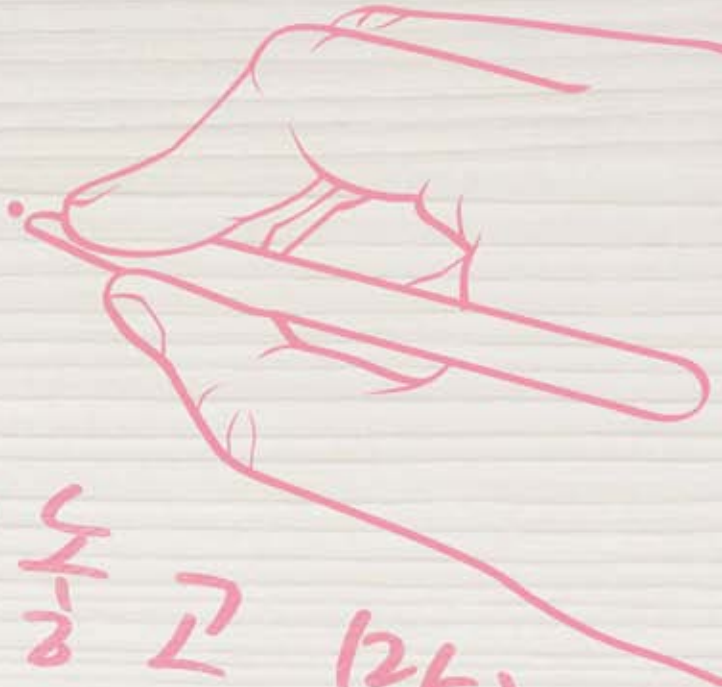
### 주연

맞아요... 하연이 말처럼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점점 경쟁에서 이길 것만을 강요하고, 이 틀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앞서 말한 행복, 즉 현재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유쾌한 긍정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경쟁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행복'이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먼저,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시선을 거두고, 수용과 사랑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부족하고 약한 나의 모습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감사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한다는 건,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욕심과 불안함을 버릴 때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춘이잖아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과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세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어보이던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길들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하연이가 자신의 청춘을, 많은 사람들이 가야한다고 말하는 길로 그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면서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푸른 봄, 청춘(靑春)을 죽이지 말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꽃피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출렁이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손 잡아주면서 괜찮다, 사랑한다 말해주고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길이 되고, 살아가다 보면 삶이 되겠지요. 2010/12/7 19:33

\* 이 글은 이주연(22,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학생이 블로그에서 나는 대화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 '책임' | '관계' Relationship around ME
- ❁ 자살을 이겨낸 사람들 |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면, 끝이 아닙니다. <닉 부이처지>
- ❁ 길고도 짧은 인터뷰 | 저는 저를 참 좋아합니다! <진진연>



너도  
고  
124,  
38471

# “관계”

## Relationship around ME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 김춘수, 「꽃」중에서  
- 김춘수, 「꽃」중에서

글\_백민정(교육부)

### 민정

안녕하세요. 즐거운 방학이 시작된 걸 먼저 축하해요. 학원과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줘서 고맙고요. 각자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먹고, 입고, 자는 것처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성장한다.

가족에서 시작된 관계는 학교와 친구, 직장과 지역사회, 세계로까지 확대되며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방식을 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늘 우리는, 나를 이루는 내 주변의 사람, 환경, 생각들을 모두 아우르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 참석자

- 홍경아 (영성고등학교 3학년)
- 임세희 (수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 백수향 (태장고등학교 1학년)
- 최다빈 (영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 서민수 (영복여자중학교 1학년)
- 김미승 (영복여자중학교 1학년)
- 유현정 (영복여자중학교 1학년)

#### 진행자

백민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 교육부)

### 다빈

저는 중학교에 다닐 때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와 인연이 되어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고 상담도 받고 그랬어요. 벌써 2년 전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세희

저도 비슷해요. 여기에서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부터는 친구들에게 소개해서 같이 봉사활동하러 오기도 해요.



### 미승

저는 올해 이곳에서 청소년자살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캠프를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은 끝났지만,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 경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오렌지 주스’ 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곳을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좀 힘들긴 했지만 나를 오픈하기도 하면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능시험 보고 요즘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 현정

저도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랬어요. 오늘은 봉사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 민수

중학교에 올라와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1학기에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상담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친구도 사귀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 수향

저는 중학교 때 많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검사를 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셔서 이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여가 선생님들과 친해지게 된 게 좋아요. 지금은 가끔 봉사활동을 하러 와요.





**민정**



그래요. 각자 다양한 이유로 자살예방센터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분이 모였어요. 하나의 현상을 경험해도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관계'에 대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미승**



저는 첫인상이 좀 강해보여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어려워하고 말도 잘 안 해요.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수향**



저는 넓게 사람을 사귀는 편은 아니에요. 친구관계가 어찌 보면 좁은 편일 수 있는데 대신 깊게 사귀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냥 문제없을 정도로만 잘 지내는 편이고, 대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하지만 진짜 친한 몇 명하고는 별의별 이야기도 다하고 그러다보니 서로 싸우게 될 때도 있지만 다시 화해하려고 노력해요.

**민정**



좋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네요.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민수**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오히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서로 속이는 것도 많고, 친구들 간의 배신이나 절교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친구 관계가 별로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민수**



친구들이랑 어울리다보면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잖아요. 모든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고 나면 나중에 친한 친구가 다시 생겨도 '얼마나 오래 갈까', '또 싸우게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친구를 사귀는 때도 솔직히 마음을 많이 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민정**



하긴 그래요.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따로 가르쳐주지는 않고 또 연습을 하지는 않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민정**



맞아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특성이나 생각들에 대해 나오는 다르더라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현정**



맞아요. 민수 말이 이해가 돼요. 어른들은 친구사귀는 걸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에게겐 어렵고 중요한 일이에요. 공부보다 더 힘든 게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인 것 같아요.

**수향**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친구든 누구든, 사람을 사귀는 건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르니까요.

**경아**



저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먼저 말을 걸지 않았는데, 요즘엔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표현하려고 해요. 좀 어설피더라도 솔직한 게 좋을 거 같아요.

**세희**



저는 세계 나가요. 무조건 세계 나를 강하게 보이고 나면 나중에 애들이 알아서 대해주더라고요. 학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잘해주면 약하게 보고 막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초반에 말 잘 안 하고, 잘 안 웃고 그러면 '아, 재는 좀 기가 센 애구나, 잘못 대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중학교까지는 참 바보같이 남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서 물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무조건 내가 참고 다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민정**



세희가 말한 내용은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을 이야기한 것으로 들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한 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힘들어요. 관계에 속해있는 양쪽이 균형 있게 서로의 역할을 잘 해나갈 때 그 관계가 오랜 시간동안 의미 있는 사이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정**



관계형성에 있어서 첫 인상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기대하게도 만들지만 좋은 인상이 아니었다면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모두들 첫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경아**



예전엔 첫인상에 모든 걸 걸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조심하잖아요. 자기 성격도 좀 죽이고(웃음), 작은 표정이나 행동으로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 걸까. 나를 원래 싫어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접근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는데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런 것들은 잘못된 편견이었던 경우가 더 많았어요.

**다빈**



알다보면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엔 친하고 좋았는데 사실은 나랑 굉장히 다른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좀 당황스럽지만 이미 관계가 시작되었고, 친구가 되었으니 서로 맞추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승**



그런데 이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거나 편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일일이 친구들한테 가서 '나 사실 그런 사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민수**



저는 사람을 잘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싸우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 정말 친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믿어보기로 했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노력하면 다시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민정**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이에요. 비단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관계를 잘 유지해가기 위한 노력일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각자만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 나눠 볼까요?

**현정**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싫으면 안 사귀지 뭐,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다빈**



맞아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만남이 생기더라고요.

**세희**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하고 먼저 양보해야 하고 맞춰야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있어하고, 용기를 냈더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경아**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 있게 행동하거나 말할 수 없고 그러다보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만 맞춰서 대할 때가 생겨요. 좀 전에 세희가 말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향**



여러 사람들을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늘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니까 딱 거기까지만 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들이랑 만날 때도 낯을 가리지 않고 말도 먼저 해보고, 내가 안 해본 경험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인간관계를 더 넓게 만들지 않을까요?

**현정**



욕을 안해야 될 거 같아요. 요즘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입버릇처럼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 안 좋지만 사실 말한 나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해야 하나? 저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한테 인사도 잘하고, 말도 먼저 걸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편인데, 정말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려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걸 조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더요.

**민정**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사람에게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당당한 자세, 솔직하게 표현하기,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기, 다양한 만남 갖기,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이렇게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잘 안 되었던 것들이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금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루지 못한 꿈으로 후회하기 보다는 2011년엔 이루어보리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관계를 위해 좋은 나를 만들어보아요!



#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고,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려 봤죠. 그리고는... 자, 이렇게 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강연승(상담부)



2010년 2월 26일 서울에서 행복과 희망에 대한 강연 하나가 열렸다. 연자는 28살의 호주 출신 청년, 닉 부이치지. 대학에서 회계와 재무학을 전공하고, 수영과 축구, 서핑 등의 거친 스포츠를 즐기며, 사회재단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이다.

닉 부이치지는 테트라-아멜리아(Tetra-amelia, 선천성 무지증)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다. 그로 인해 정규 학교 입학이 거부당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림을 받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그는 8살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10살 때는 직접 자살 시도를 했던 암울한 기억이 있다. 누구도 그가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그는 10살 때의 세 차례 자살 시도를 고백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자살 시도를 접었던 이유는 자신으로 인해 슬퍼할 이들을 생각하며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현재는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도 사는데 당신이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복에 겨운 줄 알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극복하기 어려운 고비가 있고, 그 고비를 이겨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그 고비를 넘겼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 저는 저를 참 좋아합니다!

해맑은 미소로 자신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는 자살예방이었다며 반갑게 맞아주는 진진연 선생님. 반복된 자살시도로 수없이 스스로를 아프게 했지만 지금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이 참 좋아졌다고 한다.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면 거울을 바라보고 하 하 하 하 크게 웃으신다는 웃음 바이러스 진진연 선생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본다.

글\_한효정(상담부)



웃음치료사, 자기사랑 운동가 진진연

## 끼 많은 중학교 시절, 집단폭력으로 사람이 두려워지다

끼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다섯 딸 중 넷째 딸로 태어난 선생님은 가슴 설레는 소꿉날이 되면 더 외로웠다. 집이 가난하여 실밥이 풀어진 구두를 신고 다닐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10살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이 비밀처럼 다뤄졌기에 언젠가 아버지가 살아 오실거란 믿음으로 지냈다. 형편이 어려워도 무던하게 보냈던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당한 폭력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스승의 날 연극에 주인공으로 낙점 되었지만, 배역에서 떨어진 한 친구에 의해 '거짓말쟁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동조된 6~7명의 친구들에게 매일 폭력을 당하고, 욕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홀로 밥 먹으며 왕따를 당했다. 맘속의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기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지 못했다. **사랑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가족과 친구를 대할 때 거절하지 못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난과 조롱뿐이었다.** 어느 순간, 자신은 길거리의 개똥만도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됐다.

## 홀로 보내는 여고 시절,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다

우울증은 노크 없이, 기척 없이 찾아왔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나'는 없어지고, 가족과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는 동안 자신감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미 꿈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물 받아 목욕하던 어느 날, 연탄뚜껑을 열어 두었다가 숨이 막힐 때쯤 방에 들어가 쓰러졌다. **가족 누구든 이렇게 힘든 자신을 바라봐 주길 바랬지만, 혼자만의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나버렸다.** 대입 시험 날에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시험을 볼 수 없었다. "내가 죽으면 나에게 관심 없었던 것을 미안해 할 거야." 생각하며, 투명인간처럼 없는 듯 여겨지는 존재의 쓰라림으로 귀약을 먹었다. 집에 찾아온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지만, 가족의 무관심과 혹독한 외로움은 변하지 않았다.

## 반복되는 자살 시도, 희망을 향한 몸부림

상처받고 억눌린 감정을 풀지 못해 쌓인 분노감은 망치로 몸을 자해하고, 몇 번이고 계단에서 구르게 했다.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 그리웠지만 욕과 비난만이 돌아왔다. 취직해서 일을 할 때도 늘 불안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다.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어 자신의 것을 주기만 하고 끌러가는 연애를 하다가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한 번 더 귀약을 먹었다. 아픔의 시간을 이겨내는 중에 친구의 결혼식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시댁에 헌신했지만 결혼 1년 후 딸을 낳고, 무심한 남편과 구박하는 시부모님의 말들에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다. 딸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하루에 5~6번씩 옷을 갈아입혔다. 몇 번씩이나 방을 닫고 있을 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깨끗해야 해'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딸이 자신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꿈이 생긴 것이다. 딸을 위해 동화극연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이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야간학교를 다니고, 독서치료와 상담을 공부했다. 우연히 '웃음치료사'를 접하고 과정을 밟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힘든 진심을 뒤로하고 웃는 게 '거짓'으로 느껴졌다. '저 사람들은 저만큼 잘났으니까 웃을 수 있고, 나는 아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하며 열등감으로 포기하려 할 때 친절하게 반겨주시던 교수님의 집단 상담을 받고 내면의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웃음치료사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선생님의 감동 깊은 사연은 SBS 8시 뉴스와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TV에 방송되기도 했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 봉사와 함께, 웃음치료사·자기사랑 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 진진연이 당신에게

저는 저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반복된 자살시도로 제 자신에게 많이 미안해요. 이렇게 귀한 존재인 나를 몰라보고 자꾸 못살게 굴었으니까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요. 어차피 그렇게 죽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언젠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살자고 저와 약속 했어요. <웃음>을 통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요즘은 도박도박 할 말도 잘해요. 예전엔 '난 못해! 난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무시했는데 거울보고 연습하니깐 되던데요. 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보기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청소년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시론 |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적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

미디어 속의 자살보기 |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



오해와  
진실

# 청소년 자살에 대한

“다음의 질문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정리\_이하나(상담부)

문항	청 소 년 자 살	예	아니오
1	자살에 대해 말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은 단지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2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며 자살의도에 대한 단서나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3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 더 많은 수가 자살한다.		
4	청소년 자살은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		
5	청소년은 우울하기 때문에 자살한다. 그러므로 우울증만 극복되면 청소년 자살은 막을 수 있다.		
6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다.		
7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가출 청소년에게서 자살 생각, 자살 시도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8	일단 자살하기로 마음 먹은 청소년의 자살은 막을 수 없다.		
9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다.		
10	자살은 유전된다.		

출처\_한국자살예방협회

맞은 개수    이해 수준  
 10 - 9개    이해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8 - 6개    이해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5 - 3개    좀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3개 미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청소년 자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표시한 것과 정답을 비교해 보세요.

번호	정 답	해 설
1	아니오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은 없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청소년이 자살에 관해 이야기 하거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도움을 바라는 외침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청하고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
2	아니오	청소년들은 자살 이전에 평소 잘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보인다. 그들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면 청소년의 자살의도를 알 수 있다.
3	아니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에 대해 더 많이 생각 하지만, 실제 자살 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이상 많다.
4	예	청소년들은 계획적으로 자살하기 보다는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5	아니오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울 증세를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 우울증이 자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예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7	예	가출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 보다 자살 생각,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8	아니오	자살행동은 충동적인 위기 상황을 넘기면 극복될 수 있다.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준다면 청소년 자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9	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다.
10	아니오	이전 세대에 자살한 구성원이 있었던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자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자살이 유전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자살 환경이나 가족 정서가 전달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강병철(삼육보건대학 조교수)  
하경희(아주대학교 특임교수)

정리\_서정희(팀장)

## 1 서론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청소년 동성애자는 자살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한 고위험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살시도가 이성애자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 전체 청소년 자살률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sup>2)</sup>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경우가 77.4%,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우가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제 자살 시도율이 10% 안팎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특히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탐색적인 연구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경로모형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성정체성 드러내기가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1) Gibson, P.(1989). Gay male and lesbian youth suicide, in Report of the Secretary's Task Force on Youth Suicide, edited by M. R. Feinleib,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 강병철 · 김지혜(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2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와 자살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동성애와 관련하여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 속에서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연구에서,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는 그들의 정신적 고통과 문제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김은경<sup>4)</sup>에 의하면,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란 이성애적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겪는 경험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나 가족, 친구에게 커밍아웃하기, 성정체성이 밝혀지는 것,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거나 폭력을 당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즉, 이성애 중심의 사회 안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은 청소년 동성애자에게 중요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우울감을 증가시키며 심할 경우 무력감과 무망감에 시달리게 되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sup>5)</sup>

### 2.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형성과 드러내기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초기 아동기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sup>6)</sup> 그러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12-16세 사이에 동성을 향한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된다.<sup>7)</sup>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처음부터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동성애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을 거부하지 않을지 고민하게 된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드러내기를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벽장에서 나오기'라는 용어에서 유래한다. 이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 통합시키는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며 이런 커밍아웃은 현대의 동성애자들에게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었다.<sup>8)</sup> 한편, 커밍아웃이 자발적인 것이라면, 비자발적으로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아웃팅이라고 한다. 즉 아웃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타인이 제 3자에게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커밍아웃 정도나 아웃팅 경험이 자살위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철 · 하경희, 2005)

### 3. 청소년 동성애자의 드러내기에 대한 주변의 반응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드러내기를 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하는 만큼, 그들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 데는 주변의 반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강병철 · 김지혜, 2006) 특히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되는 친구의 반응이나 재정적, 정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부모의 반응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커밍아웃을 하면 오히려 거부와 같은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3) Rosario, M., M. Rotheram-Bonus and H. Reid.(1994). Gay-related stress and its correlates among gay and bisexual male adolescents of predominantly black and hispanic backgroun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136-148.  
4) 김은경(2002).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5) Ryan, C. and D. Futterman.(1998). Lesbian and gay youth,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6) Sturdevant, M. and G. Remafedi.(1992). Special health needs of homosexual youth, Adolescent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s, Philadelphia: Hanley & Belfus.  
7) 함인희(2003). "청소년 동성애를 향한 사회적 성찰".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의 고민: 내가 동성애자인가요? 특수상담사례발표회 자료집.  
8) Garnets, L. and D. Kimmel.(1993). Lesbian and gay male dimensions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human diversity, in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sbian and gay male experience, edited by L. Garnets and D. Kimmel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드러내기 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거부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될 때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또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친다(Garnets, L. and D. Kimmel., 1993). 더 나아가 이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행동의 주요 요인이 된다.<sup>9)</sup>

#### 4. 청소년 동성애자의 반동성애 폭력경험

반동성애 폭력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유형의 상대에게 사회 법규에 어긋난 차원에서 폭력을 가하는 증오범죄의 하나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에게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관계로부터 반동성애적 발언이나 행동을 보는 경우가 많다. 학교교사 가운데는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며, 또래로부터 성적체성과 관련하여 놀림이나 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결국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강병철·김지혜, 2006)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폭력을 당한 후에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지거나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혼자 감내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폭력의 후유증으로 신체화 증상과 함께 우울, 불안, 공포,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비난 등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9) Savin-Williams, R. C.(1990). Gay and lesbian youth. NY: Expressions of identity. NY: Hemisphere.

#### 5. 청소년 동성애자의 우울

Rosario, Rotheram-Borus and Reid(1994)의 연구에 의하면 드러내기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히려 폭력을 경험하게 될 때,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많은 경우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애적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과 부정적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는 동성애적 정체성을 통합시키는 가운데서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우울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Ryan and Futterman(1998)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 동성애자의 63%, 여자 청소년 동성애자의 40%가 우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특히 우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울이 자살위험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이 대상과 관계없이 우울이 자살위험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청소년의 경우 아직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적 체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드러내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동성애자로 규정하면서 적어도 1명 이상의 타인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연령은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1차로 105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2차로 30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 135명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에서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115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조사도구

구분	조사 내용	조사 도구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학력, 종교	인구사회학적 질문
동성애 관련 특성	커밍아웃 정도	허정은 <sup>10)</sup>
	수용 정도	Weinberg and Williams, 김은경 변안 <sup>11)</sup>
	아웃팅	유우만 응답
	반동성애 폭력경험	Dean '반동성애 폭력경험 질문지', 김은경 변안(2002)
심리사회적 특성	우울	김재환, 김광일 '간이정신건강진단검사(SCL-90)' <sup>12)</sup> 중 우울에 관한 13문항
	자살 위험성	Harlow, Newcomb, Bentler '자살관념척도(SIS)', 조현진 변안 <sup>13)</sup>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1〉 조사 대상 청소년 동성애자의 특성

	변수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49	42.6
	여성	66	57.4
나이	13세~15세	12	10.4
	16세~18세	53	46.1
	19세~23세	50	43.5
학력	중학교 재학 중	9	7.8
	중학교 중퇴	2	1.7
	중학교 졸업	5	4.3
	고등학교 재학 중	38	33.0
	고등학교 중퇴	2	1.7
	고등학교 졸업	16	13.9
	대학교 재학중 기타	42	36.5
종교	기독교	26	23.0
	가톨릭	12	10.6
	불교	9	8
	기타	1	0.9
	없음	65	57.5

10) 허정은(2004).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과 자살사고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김은경(2002).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2) 김재환·김광일(1984).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한국판 표준화연구 III". 정신건강연구, 2, 278-311.

13) 조현진(1990). "우울, 자기비하 및 삶의 의미가 자살관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청소년 동성애자의 커밍아웃 대상은 동성애자 친구가 93.9%로 가장 많았으며, 이성애자 친구에게도 73.9%가 커밍아웃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모님과 친척의 경우는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커밍아웃 후 수용정도를 보면, 동성애자 친구는 8.54점, 어머니 4.24점 등으로 가족이 수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아웃팅 경험을 보면 32.1%가 자신의 의자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적체성이 알려지는 경험을 하였으며 특히 그 중 13%는 아웃팅을 당한 후 따돌림, 처벌, 폭력과 같은 부당처우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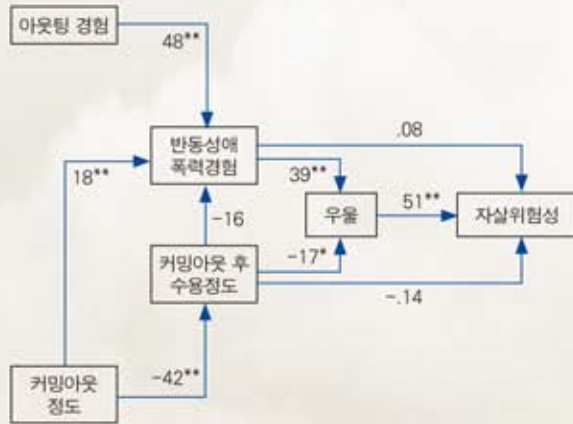
반동성에 폭력경험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며 30% 가까이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고 실제로 신체적 구타, 성적인 폭행, 무기로 공격을 당한 경우가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번 이상의 반복적인 위협이나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5% 안팎으로 나타나서 반동성에 폭력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우울과 자살 위험성에서, 우울 척도의 평균 점수는 1.26점, 표준편차는 .82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살 위험성에 있어서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경우가 80% 가까이**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을 시도해 본 경우도 30~40%**로 높게 나타났다.

## 3) 연구모형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1>와 같은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커밍아웃의 정도가 넓을수록 수용정도가 낮고(-.42), 반동성에 폭력경험이 많은 것(.18)으로 나타났으며, 아웃팅의 경험이 있을수록 반동성에 폭력경험이 많은 것으로(.48) 나타났다. 또한 수용정도가 낮고, 반동성에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17, .39) 나타났으며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51) 나타났다.

하지만 커밍아웃 후 수용정도와 반동성에 폭력경험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동성에 폭력경험과 커밍아웃 후 수용정도가 자살위험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경로모형의 각 변수들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즉, 청소년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에 대한 수용정도가 낮아지고(0.42), 수용정도가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지고(-.17), 우울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아지는(.51)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경로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커밍아웃 범위가 넓어질수록 반동성에 폭력경험이 많아지고(.18), 반동성에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지고(.39), 우울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아지는(.51)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경로는 청소년 동성애자가 비자발적으로 아웃팅을 통하여 자신의 성적체성이 드러난 경우 반동성에 폭력경험이 많아지고(.48), 반동성에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지고(.39), 우울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아지는(.51)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위에 제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 편견, 차별적 분위기로 인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특히 반동성에 폭력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요한 환경이 되는 학교의 또래와 교사,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반동성애적 태도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내어놓지 못하고 고립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또한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과 부딪힐 때 더 큰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과 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체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넓힐 필요가 있다. (강병철·김지혜, 2006)

둘째,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반동성에 폭력경험은 이들의 우울과 자살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폭력이나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하였을 때 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하다. 현재 이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나 기관이 없으며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동성애자는 상담기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표집방법에서의 한계와 청소년 동성애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표집과정이 필요하며 질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국가간 비교 등을 통하여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넓혀 가야 할 것이다.





# 언제나 큰 하늘은 그대 등 뒤에 있습니다.

인간존재와 사랑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한국)

글\_이영문(센터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교수)



요즘 사람들 입에서,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존재감’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존재’라는 철학적 주제가 아닌 ‘존재감’이라는 합성 용어는 아직 저에게 낯섭니다. 정여울씨와 같은 문학평론가는 ‘존재감’이 ‘존재’보다 더 중요한 용어로 쓰이는 기이한 사회현상을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친 존재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벌과 실력을 갖추고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 세대들, 굳이 언급하자면, 88만원세대를 중심으로 그들의 ‘존재’를 예써 외면하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조롱과 반발로써 ‘존재감’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라는 거지요. 뒤집어 보면, 기성세대는 ‘존재감’이 큰 사람이지만, ‘존재’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았지만, 빛진 등록금 갚기도 어렵고, 취직은 되지 않으며,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이 없는, 그러나 어느 세대보다 문화의 혜택을 받으며, 아름답게 성장한 서글픈 ‘존재’, 88만원 세대들의 항변이 담긴 ‘존재감’이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일탈을 느낍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았지만, 빛진 등록금 갚기도 어렵고, 취직은 되지 않으며,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이 없는, 그러나 어느 세대보다 문화의 혜택을 받으며, 아름답게 성장한 서글픈 ‘존재’, 88만원 세대들의 항변이 담긴 ‘존재감’이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일탈을 느낍니다.

‘존재’에 대한 서설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소개할 영화와 ‘존재’라는 용어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 생명체로 살아가며, 성장과 쇠락을 모두 경험한 노년의 삶에 갑자기 스며든 사랑과, 한 평생을 사랑하며 살다가 거대한 질병 앞에서 함께 죽음을 선택한 사랑이 서로 교차되어 펼쳐지는 아름다운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 한국)입니다. 스크린에 비치는 존재(?)만으로도 관객을 압도하는 노년의 국민 배우, 이순재, 윤소정, 송재호, 김수미 등이 모여 영화 한 편을 찍었습니다. 강풀의 원작만화를 ‘사랑을 놓치다(2004, 한국)’의 추창민 감독이 느리지만 진득하게 연출하였습니다. 기존의 강풀 만화의 영상 작업과는 달리, 원작에 충실하였고, 특히 굵어진 골목길과 희미한 가로등의 배치, 배우들의 대사과 표정들을 세밀하게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크게는 붓으로 그려지는 질감이 영상으로 도드라지는 효과가 느껴질 정도로 로케이션이 정확하였습니다. 놀이터, 고물상, 우유대리점, 동사무소, 윤소정의 집, 이순

어쩌면 사랑은 스스로의 외로움에 일순간 스며드는 ‘존재’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생명체로서의 존재 증명에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는 듯합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은 생명력을 일으키는 원초적인 꿈입니다.

제의 오토바이, 송재호와 김수미 부부의 집 열쇠에 이르기까지 손에 닿을 듯한 촉감을 이 영화는 만들어냅니다. 순식간에 100만 관객이 모아졌고, 입소문에 의해 영화는 퍼져가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영화게시판에서는 1200여명이 참가해 역대 관객 평점 1위 영화가 되었습니다. 잠시 영화를 들여다봅시다.

까칠한 가부장인 김만석(이순재 분)은 순종적인 아내의 죽음 뒤에 평소 잘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우유 배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뒷모습은 강인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새벽길에서 만난 송이뿐(윤소정 분)의 가냘픈 모습에 연민이 스며듭니다. 죽은 아내의 존재는 약한 동성의 여성에게 전이됩니다. 늘 그렇듯이 사랑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작됩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우유팩을 꾸리고, 고물상에 전달합니다. 송이뿐은 처음 느껴보는 사랑의 온기로 행복해지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존중받습니다. 평생 처음 단 한 번 소중하게 받아본 생일케이크와 선물, 참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동을 느끼며,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소중함을 깊이 간직하기 위해 그녀는 이제 떠난 고향집으로 돌아가 남은 삶을 보내려고 합니다. 서로 엇갈린 사랑법이지만 김만석과 송이뿐은 헤어져 있어도 그리움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물상을 통해 알게 된 주차 관리인 장군봉(송재호 분)은 김만석과는 반대로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유순하고 가정적인 남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택시기사로 일했고, 세 자녀를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그는 치매에 걸

린 아내 순이(김수미 분)를 돌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상을 순이에게 도란도란 얘기해주는 군봉과 눈을 깜빡이며 나란히 누워있는 순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누더기 같은 장판과 천장, 벽이지만 그들의 눈에 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치매와 암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위해 마지막 소풍을 갑니다. 바닷가에서 만식과 군봉은 평생을 같이 한 친구보다 더 깊은 교감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동반 죽음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군봉의 부탁을 들어주는 만식에게 알 수 없는 분노와 서글픔이 몰아칩니다.

이 영화를 보며 저는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을 떠올렸습니다. 사랑법은 우선 ‘떠나는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가 홀로 떠나고 잠드는 시간을 충실하게 바라보고 견디는 것입니다. 영화 속 네 사람의 사랑은 바로 이런 충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어쩌면 사랑은 스스로의 외로움에 일순간 스며드는 ‘존재’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생명체로서의 존재 증명에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는 듯합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은 생명력을 일으키는 원초적인 꿈입니다. 노년의 사랑을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사랑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하는 이 영화를 저는 단순히 노인자살의 현실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만식과 이뿐의 사랑이 아름답듯이, 군봉과 순이의 사랑과 죽음 또한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연륜이지만, 노년의 사랑 또한 인간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큰 하늘은 우리의 등 뒤에 있는 법입니다. 건강하세요.



#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하세요?

글\_ 최소라(상담부)

## 시크릿가든

'내가 서있던 창가에 네가 서있고, 내가 누웠던 침대에 네가 눕고,  
내가 보던 책들을 네가 본다면. 그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우리...함께 있는 걸로 치자.  
그 정도면 우리 다른 연인들처럼 행복한 거라고 치자...'

이런 편지를 남기고 주원은 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 속으로 라임과 함께 들어간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한 장면이다.

저 비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시는 못 보고, 자신이 함께했던 것들과 자신의 걸을 지키던 모든 것에 안녕을 고해야 한다는 걸 안다. 또,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슬픔이나 배신감을 안겨 줄 거라는 것도 물론 예상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원은 그 속으로 라임을 안고 들어간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메이징한 여자였기 때문에?

라임의 아버지는 소방관이다. 일찍 들어오겠다는 말을 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소방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 위험에 빠진 청년의 생명을 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홀로 남겨진 라임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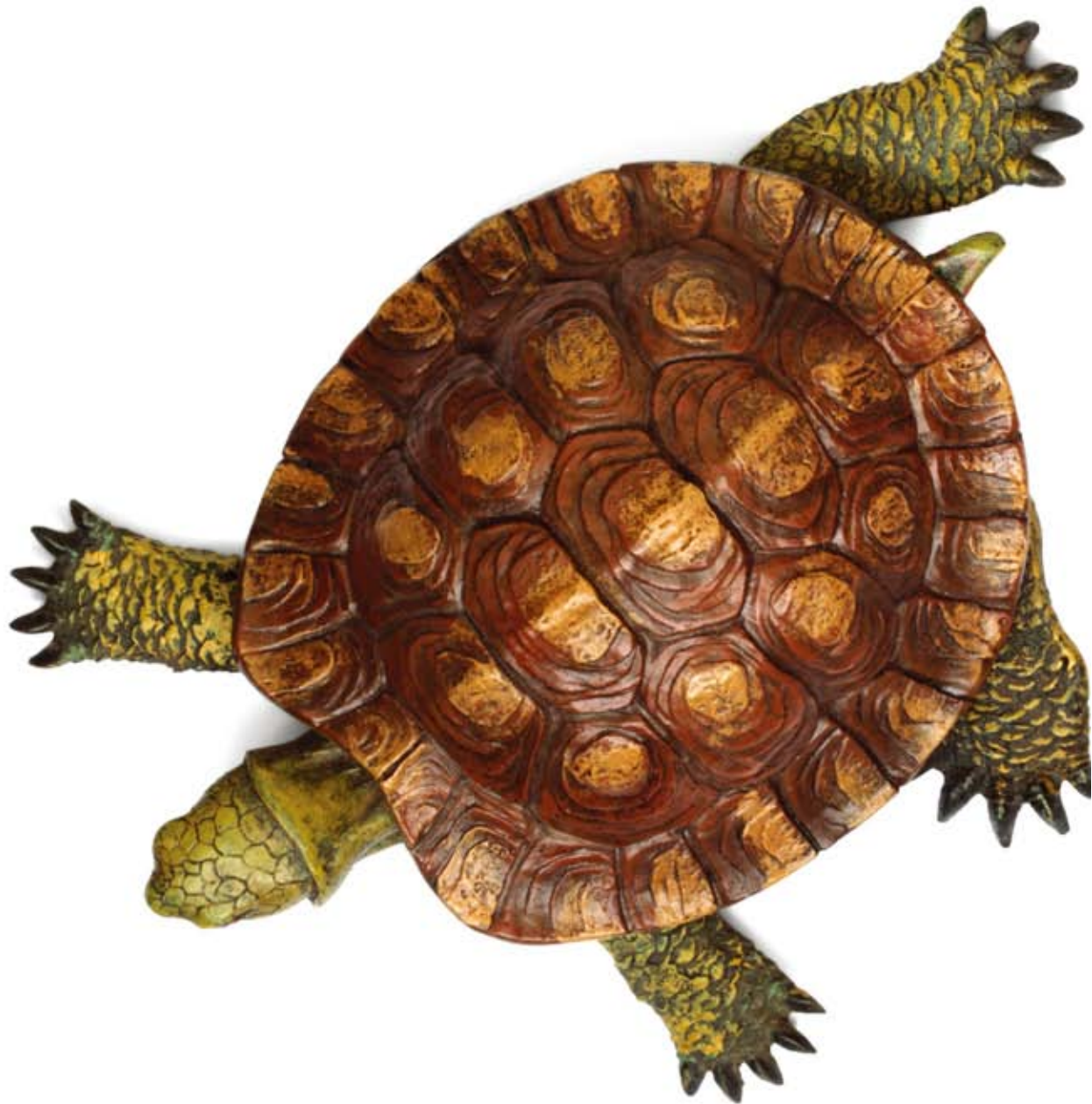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큼 슬프고 힘든 일도 없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주원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대신 라임이 자신의 몸을 빌어서라도 세상에 살게 한 것일까? 살아난 라임 역시 주원을 잃은 고통을 겪을 텐데... '사랑'을 이유로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주원과 라임의 아버지는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은 인물들이다. 너무나 사랑해서 또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을 보며, 그들의 선택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선택에 동조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동한 시청자들이 꽤 많을 것이다. 나 역시 주말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닦은 주원 없이 동참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용서 되고,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걸까? 드라마나 기사 등의 미디어에서 '죽음'이 너무 간단히 다루어지는 게 아닌지 염려가 된다.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경시가 우리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할 수 없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자살을 통해 우리는 자살이 아름다운 사건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묵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스스로 선택한 삶의 포기가 어떤 문제의 해결책도 마무리도 되어서는 안 된다.

알콩 달콩 감동이 있는 사랑이야기에 우리는 환호한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희생이라는 이름하에 생명의 존중과 귀함은 더 빛이 나아할 소재이다.





- 스트레스 대응하기 | 별들의 들판을 향해 떠나다
- 돌아줘 |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요리라고 하네
- 남겨진 사람들 | 밤길걷기
- 고민과 상담
- Help network | 나는 요일별로 웹툰 본다
- teen in csp | 수원시 중학교 생명사랑 프로젝트 「I'm your frind」

백리치기





## 미소가 어울리는 그녀~ 취미는 요리라고 하네~

입김이 솔솔, 흰 눈이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이 겨울! 미소가 어울리는 민희(중2)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보기로 했어~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을 함께 하고 싶은 가족, 친구, 선생님을 생각하며 어떤 간식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몇 g, ml 의 정확한 양보다는 '아마 이정도?' 하며 눈대중으로 서로 좋아하는 재료를 더 많이 넣는 배려 가득한 치즈떡볶이를 만들어보기로 했어! 두둥!!

요리 류민희  
글 조현선(교육부)



1 떡을 따뜻한 물에 넣어 불리는 동안 양파를 다듬고 반으로 갈라 두껍게 채 썬다.



2 어묵은 반으로 똑딱 자른 후 세로로 길게 자른다.



3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고추장을 넣는다.



4 물엿 또는 설탕을 넣고 국물을 계속 졸인다. 언제까지? 음.. 걸쭉~해질 때까지!



### 여기서 잠깐!

- ▶ 오늘의 간식을 책임진 민희야, 언제부터 요리 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 ▶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는?  
김치볶음밥이랑 치즈떡볶이.
- ▶ 민희는 요리가 왜 재밌어?  
음식을 다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먹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맛있게 먹는걸 보면 뿌듯해요. 그게 좋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 ▶ 앞으로 민희의 꿈은?  
당연히 요리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크 만드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kitchen  
FOOD  
COOKING



## 떡볶이 위에 눈이 내린 듯! "치즈떡볶이" 레시피 공개

재료는 간단해!!!

- 떡(먹을 수 있을 만큼),
- 고추장(매운 거 좋아해? 그럼 듬뿍),
- 어묵(떡보다 좋아하면 더 많이 준비),
- 양파(물에 좋으니깐 듬뿍),
- 피자치즈(남기면 섭섭하니깐 한 봉지 몽땅),
- 디진아들(적당히 반 스푼),
- 설탕 또는 물엿(욕심은 워워, 한 스푼정도)



5 잘 졸여진 국물에 어묵을 듬뿍 넣는다.



6 어묵이 등등 뜨면 불려놓은 떡과 양파를 넣는다.



7 오늘의 하이라이트 재료! 피자치즈를 듬뿍 아끼지 않고 넣는다.



8 치즈가 녹도록 냄비 뚜껑을 닫고 기다린다.



9 짜잔~ 치즈떡볶이 완성!

매콤한 떡 위에 올라간 치즈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  
치즈떡볶이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까?  
매콤달콤한 치즈떡볶이를 시원~한 음료수나 바닐라아이스크림과 먹어봐. 누군가와 함께!  
그럼 더 맛있더구!  
오늘 가족이나 친구들을 '너의 주방'으로 초대하는 거야. 이제껏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같이 느끼고 싶은 행복감을 너만의 요리법으로 표현해서 대접해 보는 건 어때?



# 밤길을 걷기

클\_이고은(교육부)

우리는 흔히 삶을 길에 비유한다.  
 '어떤 길을 걸느냐', '어떻게 걸느냐'와 더불어  
**누구와 함께 걸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의 삶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여기 뜻 깊은 걸음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 '생명사랑 밤길걷기, 해질녘서 동틀 때까지'

'생명사랑 밤길걷기'는 해질녘서부터 동이 틀 때까지 함께 걸음으로써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희망의 새날을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자살예방 캠페인이다. 내 가족, 내 이웃과 함께 밤길을 걸으면서 어둠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된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모금된 자살예방기금은 자살의 위기 속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고, 자살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등에 사용된다.

2010년의 주제는 **이웃과 함께 자신을 성찰하고 새 희망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어둠에서 희망으로 내면을 향한 여정'이다. 지난 10월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올해 행사에는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일본의 자살예방재단 '라이프링크'의 자살자 유가족도 참석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밤길걷기는 5km, 10km, 35km 구간으로 나뉘어 서울시청광장, 광화문광장, 남산, 서울 숲, 청계천 일원에서 간단한 준비운동과 함께 시작됐다. 몸을 뽀 참가자들은 걷기 전에 다양한 색의 '생명 팔찌'를 선택하는데, 주황색은 사랑하는 연인, 연두색은 가족, 노란색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밝은 사회, 흰색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걷는 중간 중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졌다. 생명체험관에서는 슬픈 기억을 적은 '새드 스톤'과 '희망 깃털'을 물속에 던져 슬픔은 가라앉히고 희망을 떠올린다는 의미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영정 사진을 찍고, 유서를 작성한 뒤 관 속에 누워보는 임종체험 프로그램과 참가자들끼리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프리 허그' 등의 행사가 이루어졌다.



## Out of the DARKNESS COMMUNITY WALKS

자살예방과 생명사랑을 소원하는 걷기 행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49개국 220여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중 미국의 Out of the Darkness Community Walk는 AFSP(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미국 자살예방 재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걷기 캠페인으로 AFSP는 연구,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있는 선도적인 국제 비영리 조직이다.

Out of the Darkness Community Walk는 인터넷상에서 개별적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발송해준다. 한국의 '생명사랑 걷기대회'와는 달리 별도의 참가비가 없으며 시민들(자살생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행사가 운영된다. 기업체나 공적 후원 없이 순수 시민 기부금으로도 경비가 충분히 마련되고 있어 주최 측에서도 이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오전 10시경부터 등록을 하고 'Honor Bead'라는 색색 짚의 목걸이를 착용한다. 흰색은 자신의 자녀를 자살로 잃은 사람, 붉은색은 배우자를 잃은 사람, 금색은 부모를 잃은 사람, 오렌지색은 형제를 잃은 사람, 보라색은 친척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 녹색은 개인적으로 자살과 싸우고 있는 사람, 파란색은 후원자를 나타낸다. 걸으면서 곳곳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는 점은 한국과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Out of the Darkness Community Walk외에도 Out of the Darkness Overnight라고 해서 한국의 생명사랑밤길걷기와 같이 오후 5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행사도 있다.



어둠속에서 혼자 걷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그의 곁에다가 발을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어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슬픈 것일지 모른다.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 ● 고민과 상담

## 제발..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먼저 말해야 할지..  
 이렇게 글로 마음을 표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가인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날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정말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릴 때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초등학교 육학년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싸워서 우울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숙상하고, 우울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지낼 만 했다. 그때부터 혼자 있을 때 서러워서 '왜 니어야 하지?' 생각하여 울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친구들과 물러다니게 되었지만..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다가식적이다.  
 같이 놀고 나서, 다른 애한테 이애 저애 뒷담화를 하고 앞에선 하하호호 웃으며 모르는 척 하고..  
 정말 싫었다. 왜 다가식적인지  
 너무 우울하고.. 피곤하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많이 힘든 가을을 보내고 있을 님,  
 이렇게 글을 적어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어색하고 어려웠을 텐데,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님이 왠지 나이보다 어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는 뭐든 다 귀찮고, 포기하고 싶고, 어둡게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님처럼 왜 그런지 알고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겪는 일상들, 생각과 행동들이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기 보다는 힘든 자신을 쉬게 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도 하시고,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는 것 같지만, 때론 친구들과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누군가

의 흉을 보는 시간들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는 말씀은 이미 성인이 된 저 역시 공감하는 일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이 어쩔다는 것을 알고 변화해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늘 오랜 시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지금 님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회와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그렇다고 계속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도움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함께 걸어가면서 나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이해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힘들 때 글 남겨주고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 보잘것없는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혼을 하셨고, 아빠 혼자서 저를 10년 키웠습니다. 전 점점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됐고, 아빠와 거리가 멀어져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를 빠졌습니다. 자퇴를 생각하고도 있죠. 저는 학교에서 꾸중 받고 앉아있는 것이 가지방석처럼 느껴져 정말 버티기 힘들어서 자주 학교 밖으로 나가곤 합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 4교시가 다되어서 겨우 들어갔죠. 아버지가 그 소식을 알고, 화가 끝까지 나서서 저에게 있는 말없는 말 다 말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도 이제 절 포기하고 내쫓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순간에도 정말 어릿속이 하얗게 백지상태가 되고 정말 너무 죽고 싶습니다. 전 아빠에게 자퇴를 하면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제가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실 줄 알고 걱정하십니다. 자퇴를 하면 물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받겠지만,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쓰려고 했는데..  
 한편으론 답이 없고,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정말 저 어떡해야 되는 건가요..정말 죽고 싶습니다..

죽신 글을 읽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님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당시 상황이나 이혼은 알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마음에 생채기가 나게 됩니다. 아버님과 서로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맘속으로는 서로 의지하고 좋은 날이 있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최근엔 너무 깊고 오래되어 지쳐버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님,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마음먹었던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정말 포기하실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아버지께 진심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버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때이고, 아직은 두 분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이 잘해주시고 헌신해주신 것들을 기억하시는 만큼 지금은 님이 아버지께 조금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부모님께 의해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님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대로 삶이 되어가게 됩니다. 과거가 어렵고 힘들었다고 미래까지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것은 님이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님, 지금처럼 고민하고 힘들면 도움을 구하고 용기 내어 바운잡으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님이 조금씩 건강하게 성장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나는 요일별로 웹툰 본다



글\_김진경(인일여고)

웹툰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는 애들을 위해 설명해 주도록 하지. 웹툰의 뜻은 웹과 카툰이 합쳐진 합성어다. 네이버, 다음 등 유명 사이트에 웹툰을 치면 여러 가지 만화들이 뜨는데, 그게 웹툰이지. 즉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만화란 뜻이다. 웹툰이라고 다 같은 웹툰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요일별 웹툰을 소개해 줄까 한다.

## 월요일엔 신나게 MON

〈폭풍의 전학생〉〈불량 뱀파이어〉  
**폭풍의전학생** 주인공 인공이는 (이름이 주인공이다.) 나처럼 운빨 하나로 먹고산다. 운빨로 학교 일짬 자리에 오르는 인공이의 좌충우돌 학교생활기.  
**불량 뱀파이어** 순종 뱀파이어에게 쫓기는 잡종 뱀파이어 이야기. 재밌긴 한데 영요 웹툰이란 이름에 맞지 않게 굉장히 늦게 올라온다.

## 목요일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갔다 THU

〈들어는 보았나! 질풍기획!〉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풍 같은 이야기.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대박 웃음을 원한다면 추천.



## 일요일 '스릴러 종결자' 단우 작가님과 '코믹의신' 임인스 작가님의 웹툰 추천 SUN

〈스토커〉〈용의 아들 최창식〉  
**스토커** 어린 딸이 있는 주부, 문선을 스토킹하는 의문의 남자 민우. 그들의 과거가 궁금하다면 클릭.  
**용의 아들 최창식** 우연히 전설의 명검을 손에 넣게 된 작은 마을의 총장 노인 최창식.  
 용사가 된 최창식이 동글을 모아 불락 드래곤을 퇴치하는 내용의 코믹 웹툰.



## 화요일엔 좀 심각하게 나가보자 TUE

〈노블레스〉〈호드러지다〉  
**노블레스** 한 화, 한 화 나올 때마다 엄청난 조회 수와 별점을 자랑하는 자타공인 웹툰계의 전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직접 보기를.  
**호드러지다** 주신이라는 가상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황위 쟁탈전, 음모를 다룬 탄탄한 스토리. 개인적으로 스토리만 따진다면 노블레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대작 웹툰.

## 금요일 판타지로 가보자 FRI

〈아스란 영웅전〉  
 과거 〈안나라수마나라〉라는 웹툰이 완결되자 볼 게 없었는데 최근 찾아낸 웹툰.  
 과거 드래곤 슬레이어였던 용사의 항약으로 평화를 찾은 대륙. 하지만 용사의 평화는 아직 멀었다. 본격 판타지 추리만화.



## 수요일 코믹과 심각함을 지나쳐 이제 좀 공포물로 가보자 WED

〈특수 영능력 수사반〉  
 어느 날 갑자기 영능력을 얻게 된 이시문 형사의 특별한 수사기. 스릴 넘치고 분량이 많아 좋은 웹툰.



## 토요일 내일은 일요일이니 파워풀가동이다 오늘 죽어라 놀고 내일도 놀자 SAT

〈농지마 정신줄〉〈아론의 무적함대〉  
**농지마 정신줄** 정신줄 놓을 정도로 웃기다고 하지만 한 번도 정신줄 놓고 웃은 적은 없다. 적당히 웃기만 하. 가끔 생각하면 보는 웹툰이다.  
**아론의 무적함대** 원피스와 같은 해적 이야기. 아론이 마치 루피 같은 선장이라 정상적인 해적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코믹 해적단.

## 그 외 완결된 웹툰 중 재밌는 것들을 추천한다.

- 〈임시명문사립정글고등학교〉
- 〈러브판타지페이퍼〉
- 〈N의등대-The Calling〉 〈N의등대-busted〉
- 〈N의등대-도망자〉 〈N의등대-눈의등대〉
- 〈안나라수마나라〉 〈싸우자 귀신아〉
- 〈미스터호러지마질〉 〈교수인형〉
- 〈우월한 마루〉
- 〈공부하기 좋은 날〉
- 〈미호이야기〉 〈의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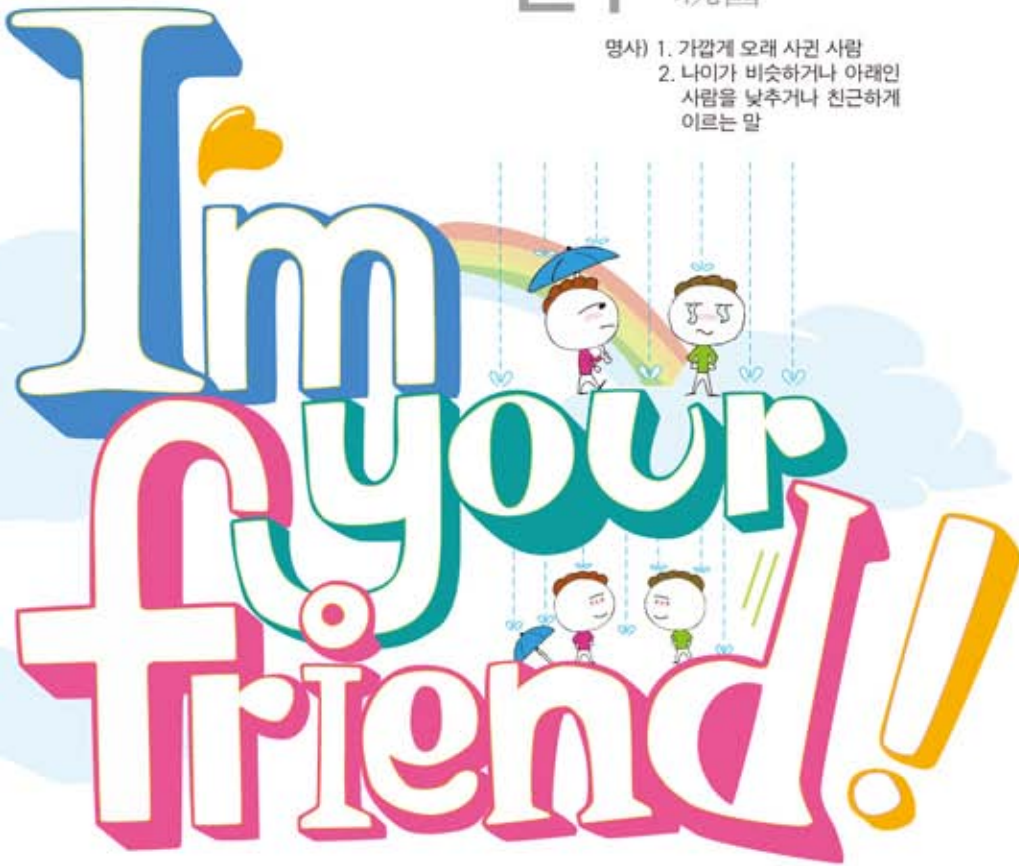
써놓고 보니까 참 많네. 이것 내가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뭐야 재미 없잖아, 이런걸 추천해?" 라는 말은 사양하겠다.

내 소신껏 썼으니 필요한 정보만 쓱쓱 빼가는 건 독자 너네들의 몫이다. 그럼 난 긴 글을 써서 힘드니까 이만 가겠다. 수고.



# 친구 親舊

- 명사) 1. 가깝게 오래 사귀어온 사람
- 2.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



전국 최초의 중학교 자살예방서비스 **I'm your friend**는 2010년 수원시내 시범학교 5곳을 시작으로 든든한 친구를 만들어 갑니다.

대상학교에는,

- ★ 1단계~3단계 프로그램 진행(멘토링 프로그램/ 미술치료/ 캠프 등)
- ♪ 「커피, 음악 그리고 가족」학부모 교육
- ♥ 생명사랑 인증서 발급과 식수행사



청소년을 위해서는, 센스만점 디자인!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때 딱 좋은 '감성포토엽서'와 어디서도 보기 힘든 청소년자살예방홍보지 '카르페디엠'을 제공합니다.



●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생명사랑 프로젝트 **I'm your friend**는 수원시 중학생에게만 해당됩니다.

2011년  
모든 것이  
바뀐다!

대한민국, 이 땅에 유일한 청소년 자살예방 홍보지 **Carpe Diem!**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크기, 재질, 분량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과 구성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살예방 홍보지는 '죽지 말라'는 내용의 그저 그런 잡지일 것이다?  
노**No** 노**No** 노**No**!

**Carpe Diem**은 자살예방 홍보지지만 자살에 대한 것만 다루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살은 죽음과 관계되지만, 죽음은 삶과, 삶은 생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죽음을 맞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건 아직 그려지지 않은 내 길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정답은 없습니다. **Carpe Diem**이 우리들 자신과 세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알게 되는 기회의 창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Carpe Diem 2011**를 받아보고 싶다면 신청해 주세요!  
메일(webmaster@csp.or.kr)제목에 [카르페디엠 구독신청]하시고, 이름, 나이, 주소,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덧붙여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면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Carpe  
Diem 2010